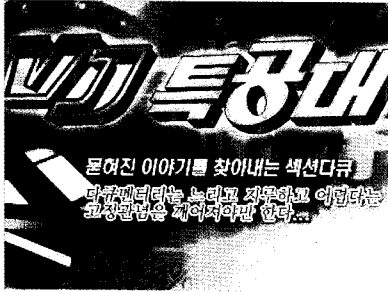


# 뱃심 든든하다! 서민 氣 살리는 인심좋은 맛집

▶KBS 2TV 「VJ특공대」 2009년 5월 15일 방송분 ▶논두렁 오리집: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118번지 ☎02)3661-513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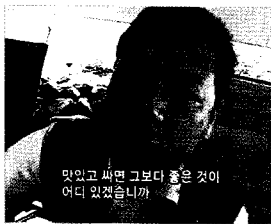


지갑 얇아진 서민에게 푸근한 인심으로 입맛 잡고, 마음까지 사로잡은 음식들이 있다. 크기와 양에 있어서는 둘째라면 서럽고, 먹어도 먹어도 쉬지 않고 나오는 음식 행렬에 말 그대로 반해버린다는데... 보면 절로 흡족해지고, 맛 또한 확실히 보장하니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 이루는 맛집이 많다는데~!! 서민 속 든든하게 채워줄 값 싸고 푸짐한 음식을 vj카메라에 담아본다.



**【이정민 아나운서】** 경기불항 때문에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음 놓고 외식 한 번하기 힘드시죠. 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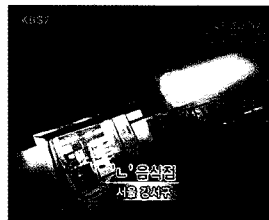
머니 사정 걱정없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서민의 기 살려주는 맛집들. vj카메라가 공개합니다.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을 위해 싸고 맛있고 푸짐하게 뽕쳤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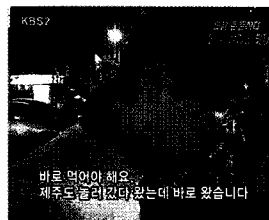
**【손님1】** 맛있고 싸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.

**【손님2】** 이전 더 이상 바깥에 안어요.

먹으면 기분도 좋고 돈도 서비스도 따라오니 기牌坊 살고 뱃심 두둑해져 나오니 또 찾고 싶어지는 서민 맛집이 지금 공개된다.



야심한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비닐 하우스 앞. 차량 줄지어 들어서고 큰 가방 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... 이 밤에 여긴 무슨 일일까.



**【손님3】** 바로 먹어야 해요. 제주도 놀러 갔다 왔는데 바로 왔습니다.

여독 풀기도 전에 이 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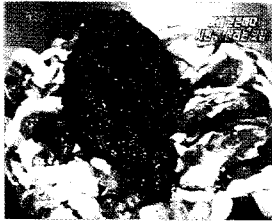


찾은 이유 궁금해서 따라 들어간 비닐 하우스. 돈 넣고 돈 먹는다는 하우스와 분위기 흡사한데... 그런데 목욕탕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너도나도 무언가 열심히 먹고만 있는데. 뭐 먹어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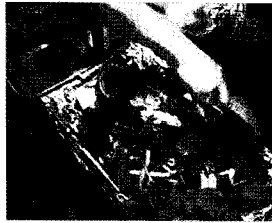
**【손님4】** 이것 먹으려고 오리처럼 날라왔어요.

먹기 좋게 썰은 오리고기에 고추장 넣고, 감자, 파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 떡사리까지 넣고, 비법 육수 자작히 부어 잡내 잡아줄 깻잎과 부추 수북히 얹어주면...



**【직원1】** 오리 한판 나왔습니다~

25,000원 짜리 오리 한마리 철판 볶음에 성인 남자 3명은 거뜰히 먹으



니 가격 부담 없어 좋고, 눈치 보지 않고 채소는 무한정 리필할 수 있어 취향따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. 오리고기 떡사리 넣고 채소와 싸먹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누구나 먹는 코스 중에 코스. 보기만 해도 분위기에 취하고



쫄쫄득득하고 맛있습니다. (먹는데) 말 시키지 마세요

오리 향에 취하고...

**【손님5】** 쫄쫄득득하고 맛있습니다. (먹는데) 말 시키지 마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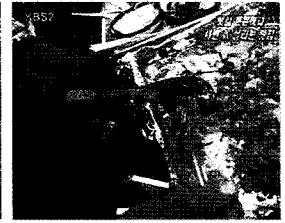


매콤한 양념 오리볶음과는 달리 마늘 오리 불고기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좋아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언니들이 좋아한다는데. 먹는 것도 예쁜 언니들! 맛 좋아요?



**【손님6】** 달콤하면서도 오리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

오리 철판볶음의 또 다른 감칠 맛이자 마무리 코스 볶음밥. 매콤한 양념에 부추를 더해 지글지글 볶아주면 아무리 배부른 사람들도 소리와 냄새의 유혹에 한 입 안 먹고는 못 배긴다고. 아이고~ 맛나겠다.



**【손님7】** 이 오리고기는 우리 집 아내보다 더 자주 봅니다.

**【손님들】** 싸고 푸짐한 오리 가 최고예요!



송규봉 이 오리고기는 우리 집 아내보다 더 자주 봅니다



싸고 푸짐한 오리 가 최고예요!